

201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 A형 정답

1	②	2	②	3	④	4	③	5	③
6	④	7	⑤	8	②	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④	19	②	20	⑤
21	⑤	22	①	23	②	24	⑤	25	③
26	③	27	①	28	⑤	29	①	30	④
31	③	32	①	33	④	34	①	35	①
36	③	37	②	38	②	39	④	40	③
41	④	42	④	43	③	44	③	45	②

해설

1. [출제의도] 담화의 맥락에 따른 화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소집단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자는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의 원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켜 주거나 주제를 구분하여 대화의 순서를 정하면 된다. ㉠에서 민호는 도윤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 점에서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참여자의 특별한 문화적 배경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에서 채원이는 자신이 며칠 전 본 신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 채원이는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와 봤다는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비언어적 표현)과 ‘맞아’라는 말(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⑤ ㉤에서 민호는 서영이가 말을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담화에서 주도자와 협력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공동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소집단 대화에서 주도자는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협력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의견도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주도자는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와 듣기 전략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보기>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열린 질문하기, 수용하기가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은 ②이다.

3. [출제의도] 담화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은 라디오 대담 상황으로, 진행자와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정당행위’의 개념과 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법리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전문가는 마지막 말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진행자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② 전문가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정당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세 번째 말에서 전문가가 한 말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전문가는 스피어디텐이 악당과 싸우다 남의 건물을 부숴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실제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캡사이신의 다양한 활용 사례 제시’는 캡사이신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학생의 발표에서 이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청중들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제 발표에서 학생은 물과 캡사이신의 관계, 우유와 캡사이신의 관계를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발표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출제의도] 필자가 활용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E]에 드러나듯 이 글의 필자는 예상 독자를 학생과 선생님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 독자의 이해 수준과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은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필자가 속한 학교의 구성원들과 관련된, 학급회의 시간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② 최근 본 다큐멘터리에서 얻은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밝히고 좀 더 자주 하면 좋겠다며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다수의 독자가 보는 학교 신문에 실리는 글임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수정 및 보완한다.

(가)와 (다)에서 학급회의 시간 편성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으므로 [A]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 ② [B]에서는 문제 결정,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 - 2를 통해 갈등 해소의 측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C]에서는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있다고 했는데, (나)에 나타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 절차를 배운다고 하였고, (다)에서는 의견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교육적 측면을 [D]에서 활용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자료를 참조하여 <조건>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한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은 자율 좌석제 관련 자료를 읽고 자료에 제시된 견해의 일부를 인정한 후에,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의 첫 문장 ‘자율 좌석제가 학습 효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에서 자료의 견해를 일부 인정한 후, 두 번째 문장, ‘하지만, 친한 친구들끼리만 앉게 되면 교우 관계를 넓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세 번째 문장,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짝을 바꾸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오답풀이] ①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단점을,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문장의 근거를, 세 번째 문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첫 문장을 근거로 시행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

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글감을 찾아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학생의 글’은 ‘작문 일지’의 내용처럼 사전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경험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기>의 항목은 순서대로 ㉠, ㉢이다. 그러나 ㉢, ㉠과 같이 ‘배려’의 효과나 ‘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학생의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 [출제의도] 작성한 초고를 고쳐 쓴다.

㉢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이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에 대해 생각에 대해 반성을 시작하는 세 번째 문단의 계기를 밝힌 것이다. 문장의 서술어 ‘때문이다’는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 삭제된다면 ‘작문 일지’에서 밝힌 성찰의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11. [출제의도] 음운현상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보기>는 ‘ㅎ 탈락’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하얏다’를 [하야타]로 읽는 것은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② ‘좁히다’를 [조피다]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ㅂ’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④ ‘그렇죠’를 [그려쵸]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에 따라 품사를 구분한다.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④의 ‘기대가 크다’에서 ‘크다’는 기대나 생각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쑥쑥 크다’에서 ‘크다’는 ‘자라다’의 뜻으로 작용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13. [출제의도] 국어의 피동 표현을 이해한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누군가가 아이가 밥을 먹도록 시킨 것이므로 이는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로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분한다.

‘가다’는 ㄱ과 ㄷ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ㄴ과 ㄹ에서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ㄷ과 ㅂ에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5. [출제의도] 응집성을 드러내는 표현 장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선지 ④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이라는 표현에서 지시 표현(‘이렇게’)과 순서, 과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휘(‘다음’)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먼저’는 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이다. ② ‘우리’라는 2인칭 지시대명사(㉡)가 사용되었다. ③ ‘그러니’는 접속 부사(㉢)로, 응집성을 표현하는 형식에 해당된다. ⑤ 앞뒤 문장에서 ‘사포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담화의 후반부가

연필꽃이 만들기 중 ‘사포질’ 단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 18] (인문)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2』**
해석학자 가다머가 주장한 이해의 과정으로 ‘선이해’ 및 ‘지평 융합’에 대해 소개한 글이다. 그에 따르면 이해의 과정은 주체의 선이해에 의해 형성된 현재 지평과 역사적 지평이 융합하는 과정이다. 현재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 상호작용을 통해 수정, 확대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지평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은 일회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이다.

16. [출제의도] 글의 논지 흐름 방식을 이해한다.
이 글의 화제는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고, 이와 관련한 핵심 개념은 ‘선이해’와 ‘지평 융합’이다. 첫째 단락에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인 ‘선이해’와 ‘지평 융합’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째 핵심 개념인 ‘선이해’를 계몽주의 학자들의 견해와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지평 융합’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현재 지평’과 ‘역사적 지평’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앞서 논의된 핵심 개념을 종합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의 과정적 속성에 대해 정리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계몽주의 학자들은 선입견을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잘못된 생각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선입견은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생각으로 보았는데, 이를 통해 계몽주의 학자들이 개인의 권위나 속단에서 비롯된 생각을 부정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두 번째 단락에 의하면, 계몽주의 학자들은 이성적인 이해를 중시하였다.

18. [출제의도]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생각’(㉔)은 인간 본성에 대한 민수의 현재 지평이다. 이것이 ‘동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텍스트’(㉕)와 융합하여 ‘인간은 선악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㉖)라는 새로운 지평을 형성한다. 이는 다시 ‘서양 철학자들의 논의를 다룬 텍스트’(㉗)와 융합하여 ㉘와 같이 이해의 폭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㉔가 ㉕와 융합하여 새로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다음 이해의 현재 지평으로 작용하여 ㉗와 융합하여 좀 더 확장된 이해로 나아간다. 따라서 민수의 현재 지평은 ㉕, ㉗와 순차적으로 융합하면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 22] (사회) **김병용, 『관광소비자행동론』**
제시문은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안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은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안 평가 방식을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문단을 보면, 비보완적 방식 가운데 결합 방식과 분리 방식은 서로 다른 평가 기준에서도 브랜드 평가 점수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고 분리 방식을 사용한다면 가격 면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A를 선택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 상황에서 민영이 사전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1순위 기준인 가격에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A를 선택할 것이다. ② 민영이 가격과 디자인의 순위를 바꾸어 디자인을 1순위 기준으로 사전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디자인에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B를 선택할 것이다. ③ 민영이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순차적 제거 방식을 사용한다면 가격에서 3에 미달하는 B가 제일 먼저 제외될 것이다. ④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결합 방식을 사용한다면 모든 기준에서 평가 점수가 3 이상인 C를 선택할 것이다.

22. [출제의도] 고유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한자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케팅 전략을 세우다’에서 ‘세우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는 뜻의 ‘수립(樹立)’하다’로 바꿀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정립(定立)하다: ~을 정하여 세우다 ③ 설립(設立)하다: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키다. ④ 제정(制定)하다: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다 ⑤ 지정(指定)하다: ~을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하다.

[23 ~ 25] (과학) **석현정 외, 『빛의 공학』**
이 글은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많이 방출하여 광원이 없어도 물체 스스로 빛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열복사 현상, 그리고 물체의 온도와 방출하는 파장과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와 관계를 보여주는 흑체복사 곡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2문단에서 열에너지를 지닌 물체의 원자들이 움직이면서 원자 내 전자들이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는 것과 3문단에서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많이 방출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기파 파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없다.

24.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빛이 없는 지하에서 석탄을 달구면 석탄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빛의 색이 달라진다. 우리가 석탄에서 보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 때문인데, 흑체복사 곡선으로 석탄의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파장과 에너지의 세기를 알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흑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세기의 최고점이 파장이 짧은 쪽인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파장 분포 곡선의 최고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과학적 사실 중에서 특정 판단에 필요한 것을 파악한다.
흑체복사 곡선에서 곡선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파장의 길이가 다르면 물체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물체가 떠는 색에 따라 물체의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 ‘어떤 별이 태양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에 해당하는 파란색을 띤다’는 것에서 이 별이 태양보다 곡선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파장의 길이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온도가 높을수록 흑체복사 곡선에서 그래프의 넓이가 넓어져 복사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의 전체적인 양만으로 물체가 떠는 색을 보고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

[26 ~ 27] (예술)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건축의 공간 개념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기능주의 건축에서는 공간을 기능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여 공간 구성이 일률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건축의 경향이 변화하고 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다. 공간을 가변적이고 예술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공간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며 공간 체험자에 의해 다르게 인식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공간을 통해 시대의 경향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설명방식을 파악한다.
건축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간에 대하여 기능주의 건축에서의 관점과 최근의 관점이 다름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기능주의 건축에서는 공간을 기능을 위한 도구로서 이해했다면 최근의 건축에서는 공간을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니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간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등장하지만 이를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④ 사례가 등장하지만 이를 종합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27. [출제의도] 세부정보를 파악하고 적용한다.
<보기>의 건물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연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건축의 예술성을 실현하였다. 비정형적인 형태의 건물을 지은 것도 공간의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를 주거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③ 미단이로 공간을 변형할 수 있게 한 것은 공간을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⑤ ‘로젠탈 현대미술센터’의 경우처럼 다양한 공간을 결합한 것은 공간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8 ~ 30] (기술) **김상철, 『3축 가속도 센서』**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한 3축 가속도 센서의 작동 원리를 소개하는 글이다. 스마트폰에 사용된 3축 가속도 센서를 예로 들어, 정지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가속도 센서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축 가속도 센서의 축과 중력가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가속도 센서의 값이 달라진다. 즉, 축과 중력가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은 가속도 센서 값과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① 가속도 센서의 값은 방향성을 가진 요소로 구성된다. ②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축 가속도 센서에 의해 중력가속도가 감지된다. ③ 가속도 센서는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를 검출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이다. ④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세 축 방향에서 가속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9. [출제의도] 추론 내용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책상이 지면과 수평이 아니면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평평하게 놓더라도 스마트폰이 지면과 수평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z축이 중력가속도와 나란하지 않게 된다.
[오답풀이] ② 책상의 높이를 낮춘다고 해서 스마트폰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③ 스마트폰을 기울어진 상태로 놓는다고 하여 세 축이 모두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z축이 중력가속도 방향과 수직이 된다. ⑤ x축은 여전히 중력가속도 방향에 수직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의 y축은 (가)에 비해 중력가속도 방향과 수직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나)의 y축 가속도 센서 값은 (가)보다 작다.

[오답풀이] ① (가)의 y축이 <그림 2>에 비해 중력 가속도와 나란한 방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② (가)의 z축이 (나)에 비해 중력가속도와 수직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③ (나)의 z축이 <그림 2>에 비해 중력가속도와 나란한 방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⑤ (가), (나) 모두 x축은 중력가속도에 수직이기 때문이다.

[31 ~ 33] (현대시)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이 시는 흠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기쁨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산문시이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세계 각지로 흠어져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어서 정든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3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시에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시에는 겉표의 잦은 사용으로 시의 호흡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② ‘충충히’, ‘닐닐닐’, ‘두둥실’ 등 의태어와 의성어가 많이 사용되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④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등과 같이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다고 일러라’, ‘~돌아오고’ 등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32. [출제의도] 시어나 시구의 의미, 기능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아득한’, ‘너는 못 듣고’ 등을 통해 ‘너’와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알 수 있으며,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 서는 게냐’, ‘어어이 어어이 소리 높여 부르는 나의 읊성도 너는 못 듣는다’ 등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33. [출제의도] 자료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기>의 맥락에서 시를 감상할 때, ‘눈물’과 ‘피’는 흠어져 지내던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며, ‘푸른 빛 깃발’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종달새는 운다’는 새봄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징표로 역시 희망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구를 근거로 ‘너’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4 ~ 37] (현대소설)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이 작품은 산업화 시대 떠돌이의 삶을 다루고 있다. 영달, 정씨, 백화는 모두 산업화 시대에 고향을 잃고 떠도는 인물들이지만 동행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된다.

34. [출제의도] 특정 장면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㉓와 ㉔는 영달과 백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독자는 이것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게 된다.

35. [출제의도] 장면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㉔는 정씨가 영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영달이 백화를 따라가면 ‘뜨내기’ 신세를 청산할 수 있음은 물론 백화를 통해 일자리도 소개받을 수 있다고 말하

고 있다. 영달의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표현은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이르는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공간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세 사람이 도착한 감천 ‘읍내’는 장이 켜다가 파장된 후였고 이들은 서로의 행선지를 물으며 헤어질 준비를 한다. 세 사람이 나눈 팔시루떡을 산 곳도 장터 중앙이 아닌 모퉁이이다. 따라서 감천 ‘읍내’를 중심부에서 밀려난 자들을 포용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풀이] ① ‘산골마을’을 추위와 허기 속에서 지나치는 세 인물을 통해 고달픈 떠돌이의 삶을 읽을 수 있다. ② ‘폐가’에서 세 사람은 불을 쬐며 일시적인 휴식을 갖는다. ④ ‘장터’에서 백화는 자신의 떡 반절을 영달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을 통해 이들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역’에서 백화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이것은 세 인물의 동행이 끝남을 보여 준다.

37. [출제의도] 장면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라는 말을 통해 영달이 목적지가 없는 떠돌이 신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달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38 ~ 40] (고전소설) 작가 미상, 「심청전」

이 작품은 ‘효(孝)’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근간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로, 눈먼 심 봉사를 위하여 공양미 삼백 석을 조건으로 인당수에서 제물로 희생된 심청이 다시 살어나 왕후가 되어 심 봉사와 재회하고 심 봉사도 눈을 뜨게 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문은 심청이 인당수로 떠나는 날 아침 심 봉사 및 장 승상 부인과 이별하는 내용을 서술한 대목으로, 심청과 심 봉사, 심청과 장 승상 부인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심청의 희생은 심청의 내적 갈등, 심청과 심 봉사 간의 대립, 심청과 장 승상 부인과의 갈등과 같은 양상을 불러일으키지만, 심 봉사와 동네 사람들 간의 갈등은 지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대화 내용 및 내용의 구조화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심청은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와 같이 말하며 애초에 장 승상 부인의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소용없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와 같은 장 승상 부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뱃사람들이 내준 공양미 삼백 석을 자신이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하며 심청의 결정을 만류하고 있다.

④ 승상 부인의 말을 수용할 경우 ‘뱃사람들 일이 낭패’로 돌아갈 것임을 언급하며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⑤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라는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 ~ 43] (고전시가) 작가 미상 「유산가」/ 윤선도, 「만홍」

(가) 작가 미상 「유산가」

이 노래는 서울을 중심으로 불러졌던 12잡가 중의 하나이다. 백화가 만발한 화창한 봄날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으며, 자연 속에

서 한껏 즐거움을 누리는 선인들의 삶에 대한 낙천적 태도와 유희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후반부로, 다채로운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는 등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나) 윤선도, 「만홍」

이 작품은 작자가 유배에서 풀려나 금쇄동에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세상을 멀리 하고 자연에 묻혀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총 6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전통적인 강호가도를 계승한 것으로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임금의 은혜를 언급하는 등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41. [출제의도] 주어진 두 시가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는 백화가 만발한 화창한 봄날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고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4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 시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거지 중천 → 원산 → 태산(기암 → 장송 → 폭포)’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암은 층층/장송은 낙락’, ‘이 골 물이 주루룩/저 골 물이 찰찰’ 등에서 대구를 통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③ 의인법(장송은 ~춤 춘다), 직유법(수정럽 드리운 듯, 은옥같이 흠어지니) 등을 통해 자연의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펼펼펼, 우줄우줄, 팔팔, 주루룩룩, 찰찰, 으르렁’ 등의 고유어뿐 아니라 ‘첩첩, 층층, 낙락’ 등 한자어로 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4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몰러남’은 현실적으로 정쟁에서 밀려나거나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화자는 그런 외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몰러남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진술은 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44 ~ 45] (희곡) 차범석, 「성난 기계」

이 작품은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사실주의 단막극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현실에 종속된 인간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말부에서 주인공의 태도에 반전이 일어나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파악한다.

‘회기’가 ㉔에서 웃음을 터뜨린 것은 ‘금숙’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자신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45.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인옥’은 ‘회기’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아달라고 애원했지만 ‘회기’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회기’를 기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어린 자식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아 비정한 의식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없다.